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3년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3. 12.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소개	1
2. 2023년 연구활동개요	5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6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9
1. 연구용역 추진	9
2. 월례회의	16
3. 자체 평가회의	16
III. 활동후기	19
IV. 언론보도	39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소개	1
2. 2023년 연구활동개요	5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6

I -1.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소개

☐ 단 체 명 : 의회개혁발전연구회

☐ 소속의원 : 서호성(대표), 박진우(간사),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연구내용	주제	의회개혁 및 발전을 위한 정책·입법 과제 연구	
	목적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의회 역할 강화 도모	
연구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3년)	총 액	금2,300,000원(금이백삼십만원)	
	산출내역	- 행사비(전문가 강연 및 간담회) : 700,000원 - 우수사례 견학 및 현장 방문 비용 : 700,000원 - 도서 등 물품구입비 : 200,000원 - 연구결과 자료집 제작비 : 400,000원 -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 300,000원	

☐ 설립목적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의회 역할 강화 도모

□ 단체 설립배경

-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축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의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바, 의회개혁과 발전을 위한 연구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 전문가 강연, 타의회 현장 견학 등 연구활동을 통해 의회에 대한 이해와 입법 전략을 심화시키고, 의회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으로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과 의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기초 및 광역의회를 견학하여 구의회 운영현황과 조직발전 전략 탐색
-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자치법규와 조직운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입법방안 수립

□ 연구계획

- (의원 입법 역량강화)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담은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연 2회 실시하여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 도모
- (우수사례 탐색으로 벤치마킹 방안 도출) 타 기초의회 견학으로 서대문구 자치입법 및 의회 발전 전략 탐색
- (서대문구 맞춤형 정책 도출) 전문업체를 통한 연구용역으로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개선점과 조직운영에 대한 개선 정책 및 입법과제 모색

□ 2023년 세부 활동계획

○ 전문가 초청 강연

- (목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의원 입법 역량 강화
- (주제) 서대문구 자치법규 현황의 이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등

○ 타 기초의회 방문 및 견학

- (목적) 타 기초의회 견학으로 서대문구 자치입법 및 의회 발전 전략 탐색

○ 정책연구용역 추진

- (주제)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 (내용) 자치법규 개선점과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 (기간) 2023년 4월 중순~10월 중순

○ 월간 계획(안)

3월	의회개혁발전을 위한 준비회의
4월	월례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5월	월례회의, 타의회 견학, 간담회
6월	월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7월	월례회의, 타의회 견학, 간담회
9월	월례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10월	월례회의, 타의회 견학, 간담회
11월	월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12월	월례회의, 2023년 연구결과보고회

○ 연구활동 예산안

행사비	700,000원	- 전문가 강연(2회) - 정책토론회(2회)
우수사례 견학 및 현장 방문 비용	700,000원	- 우수사례 견학(3회)
도서 등 물품구입비	200,000원	- 관련 도서 등 연구활동 관련 물품구입
연구결과 자료집 제작비	400,000원	- 연구결과 자료제출
회의 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00원	- 회의 및 보고회(2회) - 간담회(7회)
연구단체 예산 총액	2,300,000원	

I -2. 2023년 연구활동개요

월	활동내역
3월	○ 월례회의
4월	○ 월례회의
5월	○ 월례회의
6월	○ 월례회의
7월	○ 월례회의 ○ 7.24.(월) 연구용역 착수보고
9월	○ 월례회의
10월	○ 월례회의 ○ 10.31.(화) 연구용역 중간보고
11월	○ 월례회의
12월	○ 월례회의 ○ 12.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

I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2023년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2,300,000원

☐ 지출금액 : 금981,500원(집행률 43%)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 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11/1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다과비	반달커피	102,000원	행사비
2	10/27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간담회비	연술	333,000원	간담회비
3	11/14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다과비	반달커피	117,500원	행사비
4	12/18	연구활동보고서 제작비	북청사	429,000원	인쇄비
합 계				981,500원	

II . 연구활동별 보고	9
1. 연구용역 추진	9
2. 월례회의	16

Ⅱ-1. 연구용역 추진

서대문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용역

☐ 과 업 명: 서대문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용역

☐ 계약업체: (사)지방자치발전소

☐ 과업목적: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변경사항 및 지방의회 관련
개정사항 심층 분석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의회 및 타 시·군·구의회 자치법규

☐ 과업의 내용

-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 및 연구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 주민조례발안제·주민자치 원리 강화·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주민감사청구제 등 주민 권리 확대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른 구체적 대응전략 연구
 - 의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의회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 및 방향성 모색
 - 지방분권에 따른 의회 사무기구의 개편 및 의회 인사·조직 운영 관련 방향성 제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모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일(2022. 1. 13.)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시행착오)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방안 도출

-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보완점 연구
-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타 시·군·구의 조례 분석을 통한 각종 사례(문제점 등)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서대문구의회 심층적 평가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 서대문구의 지리적·지역적 특성에 따른 서대문구의회 의정 환경 분석
 - 현재 서대문구의 물리적 환경 등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한 정책 개발의 한계점
 - 현재까지의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전개 방향 제시
 - 서대문구 인구 분포 특성에 따른 정책 비전 제시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된 서대문구의회 자치분권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 과업수행과정

I. 착수보고회

- 일 시: 2023. 7. 21.(금), 15:00~16: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12명

소속	참석자
의회개혁발전연구회	- (대표)서호성, (간사)박진우,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연구진	- 이윤희 (사)지방자치발전소 사무총장 - 신희진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원 - 정인영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 사무국장, 정책지원팀장 및 정책지원관 2인

○ 주요내용

-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 및 연구
 -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모색
 - 주민 조례 발안제, 주민자치 원리 강화,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 감사 청구제 등 주민 권리 확대에 따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른 구체적 대응 전략 연구: 의회 권한 확대에 따른 의회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 방향성 모색
 - 지방분권에 따른 의회 사무기구의 개편 및 의회 인사·조직 운영 관련 올바른 방향성 제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모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후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방안 도출
 -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필요성 검토 및 보완점 연구
 -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타 시·군·구의 조례 분석을 통한 각종 사례(문제점 등) 점검 및 시사점 도출
 - 서대문구의회회의 심층적 평가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 서대문구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서대문구의회회의 의정 환경 분석
- 의원제언
- [박진우 간사의원]
 - 주민자치 조례 관련 비교분석을 실시하길 바램. 예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타 자치구와의 비교분석 실시하는 것을 요청.
 -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필요. 의원들이 지원관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 필요.
 - [서호성 대표의원] : 주민참여와 관련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으로 과업 내용으로 담지 않는 것을 제안.
 - [이용준 의원] : 현재 서대문구에서 주민참여는 민감한 이슈이므로 해당 내용을 빼고 다른 정책을 더 풍부하게 연구하길 제안.

○ 진행사진



II. 중간보고

○ 일 시: 2023. 10. 31.(화), 14:00~18: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12명

소속	참석자
의회개혁발전연구회	- (대표)서호성, (간사)박진우,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연구진	- 이영숙 (사)지방자치발전소 아이콜라 대표 - 이윤희 (사)지방자치발전소 아이콜라 사무총장 - 정인영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원 - 김미영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 정책지원관 2인

○ 주요내용

-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의 지방자치법 개정 반영 현황

-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하였음(2022.3.2. 시행).

연번	대상 자치법규	개정조항
1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외 5개 조항
2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외1개조항
3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4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외1개조항

-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정 제안

- 종합적·체계적인 의회 운영 관련 기본조례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운영 자율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조례 제·개정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의회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여 기본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방향

- 조직 운영, 업무 관련, 인사 운영 관련 세가지 측면의 방향 제시: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기구 관리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배경으로 한 사무기구 운영 방향 제시.

○ 의원제언

- [이진삼 의원]

- 의원, 정책지원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필요.
- 참고문헌을 제시하지 않아 참고문헌에 대한 충실한 작성 필요.

-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 의원들의 느끼는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연구 진행 필요.

○ 진행사진



Ⅲ. 최종보고

○ 일 시: 2023. 12. 11.(월), 15:00~16:3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참석자: 총 13명

소속	참석자
의회개혁발전연구회	- (간사)박진우, 강민하, 김양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연구진	- 이영숙 (사)지방자치발전소 아이콜라 대표 - 강한옥 (사)지방자치발전소 아이콜라 이사 - 정인영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원 - 김미영 (사)지방자치발전소 연구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 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관 2인

○ 주요내용

- 서대문구의회 단기 개선 과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정 활동 공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본조례」 제정 등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제안.

-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서대문구의회 특성을 반영한 정책지원관 배치 및 업무 우선순위 부여 등 개선방안 제안.

- 서대문구의회 중장기 개선 과제

- 의원에 대한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의회의 인사권 독립 역시 실제 의장의 권한은 의회 대표권, 의회 사무기관 관리·감독,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인사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공무원 임명권 등 관련 규정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

-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운영 방향

- 조직 운영, 업무 관련, 인사 운영 관련 세가지 측면의 방향 제시: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기구 관리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배경으로 한 사무기구 운영 방향 제시.
-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집행 기구와 지방의회의 기준인건비 분리 등 예산편성권 독립에 의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의원제언

- [이진삼 의원]

- 정책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의 정당이 다르거나 소속 위원회가 다른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배치 방법 도출 필요.
-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정책지원관별로 업무량이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 [김양희 의원] 규정 부재로 인해 정책지원관이 업무 범위를 방대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업무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박진우 의원]

- 의원 간, 정책지원관 간,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 업무 범위와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진행사진



Ⅱ-2. 월례회의

2023년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월례회의

□ 월례회의 개최실적

월	논의내용
3월	-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추진 논의 · 연구주제 및 연구수행기관 논의
4월	- 연구단체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 ·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전형적인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비대면을 통한 의견 공유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아이디어 도출 필요
5월	- 연구용역기관 제안서 점검 · 내용 및 연구비 적절성 점검 - 연구단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여 준비 · 발제자 및 발표내용 논의
6월	- 연구용역 계약진행 현황 공유 · 내용 및 연구비 적절성 점검 · 연구용역 착수보고 계획
7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 기획 · 일 시: 7. 21.(금), 15:00~16:3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주요안건: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용역 추진방향 논의
9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 기획 · 일 시: 10. 31.(화), 14:00~18:0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주요안건: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월	논의내용
10월	- 차년도 활동 계획 및 연구주제 관련 논의 · 연구회가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필요 · 금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 주제 및 활동 목표 수립 필요
11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 기획 · 일 시: 12. 11.(월), 15:00~16:30 · 장 소: 서대문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 · 주요안건: 연구 최종결과 보고 및 연구단체 회원 의견수렴
12월	- 연구결과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논의 · 도출된 연구 결과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필요 · 개최 시기는 '24년도 상반기로 하며, 서대문구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섭외 예정

III. 활동후기	19
-----------	----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를 마치며

서호성 의원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우연하게도 동료 의원에게 제안을 받아 시작이 되었고
영접결에 대표까지 하게 된 연구단체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상 의회
개혁발전연구회는 제가 언젠가 꼭 구축하고 싶었던 연구단체이기도 하고 이번 연구
과제인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 연구’는 제가 숙원
했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그 중요성에 비해 권한이 너무 미약하고 지원이 너무 열악한 실정
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이나 의정지원활동 강화 등 일부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으나, 그야말로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그마저도 준비 소홀과
집행부의 횡방, 지방의원들의 자각 부족으로 온전히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에는 의회를 개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연구회 운영은 본래 스터디 및 세미나 형식으로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려 하였으나, 의회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연구회의 대표로서 매우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 여건이란, 의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식 편차와 구청 현안을 둘러싼 소속 정당의 입장의 차이 같은 것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큰 틀에서 더 확실하게 단결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것은 우리 연구회 구성원들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입법 등 의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든지, 정책지원관 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든지, 미흡한 현 제도 안에서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결론에 모두 동의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공감을 이뤘습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의 미흡했던 의회개혁 발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이익을 떠나 지방자치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데 뭉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의회 의장단, 특히 의장의 역할과 역량이 특히 강조되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선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곧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박진우 의원



2023년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며 새삼스레 연구단체명을 떠올려보니 왜인지 모르게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개혁’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니, 참으로 어렵고도 복잡한 연구를 추진했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과거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개혁’은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개혁의 과정이 불편 혹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가 매우 유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이 곧바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개혁을 통해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구성원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은 물론 다양한 비용을 소모해야 합니다. 일종의 시간차(時間差)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의회의 개혁과 발전이라는 두 개념의 시간차를 줄이고 나란히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22년 7월 구민들의 부름을 받아 구의원이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된 때였습니다. 33년만의 법개정이라는 점, 개정 내용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은 초선의원인 제게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의원으로 선출된 시기에 이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행운과도 같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¹⁾와 제103조제2항²⁾이 법개정의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도록 실현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문제의식과 변화의지를 느낀 의원님들을 구축으로 ‘의회개혁발전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단체는 가장 먼저, 우리 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현 우리 구의회의 상황에 대한 진단은 물론, 타구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연구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점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회원들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함으로써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함께 연구 활동을 펼쳐주신 연구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당초 계획한 활동을 모두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연구 회원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혁’과 ‘발전’이 나란히 가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가 그 길을 시작하였으니, 마무리까지 해내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1)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주민의 대표이자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해준 의회개혁발전연구회에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23년 활동을 발판삼아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의회개혁발전연구회 활동을 돌아보며

강민하 의원



올 한 해 ‘의회개혁발전연구회’에서는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돌아보고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의회규칙의 정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 현황을 분석하여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저는 의회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의회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지방의회마다 정책지원관 소속과 직무 등 운영방식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정책지원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 배치·직무·평가·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에는 구체적인 실무내용까지 담기 어려운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후 서대문구의회는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여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정되어 정책지원관과 의원이 직접 소통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정책지원관을 통해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도움받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도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담당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내용을 제안하고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의원별 의정활동이 잘 홍보되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의회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을 1명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내년에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서대문구의회가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예산 심의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충실하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김양희 의원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의장의 인사권을 독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방분권 실현과 맞물려 「지방의회법」이 논의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대립형 구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입법활동, 정책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좌보다 행정지원, 의사 업무에 좀 더 치중하다 보니 의원별로 주력하는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이 원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혼자서 관리해왔으나 의원 개인이 전부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인력이 절실했다. 2022년에 시범 운영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인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보다 내실있는 감사에 임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지원인력 제도화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었다.

일회성 인력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주민의 관심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면 지방 의정에 대한 신뢰도 얻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지방의회를 둘러싼 정책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시각에서 이해관계자를 바라보고 의원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을 개선하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 조직편성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건강한 생활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밀착형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주민이나 시민사회, 지역언론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확대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아래로부터의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주민과 행정을 잇는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박경희 의원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고, 2022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서대문구의회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정책지원관 제도를 채택했고, 의원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을 순차적으로 선발했다.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례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 동네 곳곳을 다니며 청취하는 민원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구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자 당사자, 전문가, 구청 관계자, 여야 의원, 기자 등과 소통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새롭게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도 공론화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 보다 많은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선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민의 세금이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인력과 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투입되면 보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사업 등을 통해 행정과 협업했던 경험이 누적된 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도 복잡해졌고,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예고, 의회에 바란다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지만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가 다소 적은 편이었다.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거나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힘을 싣다보니 주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의원 개인의 의지나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됐던 정책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불러낸다면 지방의회가 민심을 대변하는 통로로 여러 가지 지혜가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정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의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의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년 의회 개혁발전 연구회 활동을 마치며

이진삼 의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만큼 길고,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7대 서대문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때가 2014년 7월이고, 올해가 2023년이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 근접해 왔습니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 는 서대문구의회는 물론, 지방행정을 둘러싼 10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구의원의 경험이 있는 ‘선배의원’ 으로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은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는데, 더 나은 환경이 동료 의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변인들의 만족과 행복을 살피는 구의원으로서 일종의 직업병으로 인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거 선배의원들이 기꺼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과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임으로써 더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법의 시행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렇게 ‘의회개혁발전연구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방행정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회원들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의원 경험이 있는 연구회원들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경력에서 오는 연륜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구회원이 초선, 재선, 삼선 의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의 소속 정당도 다르지만, 의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대의를 중시하자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간 토론 시에는 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효과적인 연구단체 운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를 위해 애써주신 서호성 대표의원과 박진우 간사의원, 그리고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용준, 홍정희 회원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의원경력이나 정당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고 의미 깊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의회개혁발전연구회의 활동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회의 개혁과 발전은 무한하기에, 멀다기보다 끝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곧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이용준 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에 시작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의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30년간의 휴지기를 갖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022년 7월에 처음 서대문구 의회에 입성했던 무렵인데,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가졌던 30년의 공백을 생각하면 지난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처음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무렵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을 모두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치입법권을 가진 한 명의 의원으로서 지역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경험하고 보니 새롭게 전부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윤리 심사 징계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능 강화’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히 관심이 갔던 분야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였습니다.

의회 내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꼈던 것은 바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인데, 당초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정책지원 인력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였으나 2022년에는 의원 정수 4분의 1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여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나머지 인력이 모두 채용되어 드디어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지원관을 배정받아 다양한 업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때때로 그마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책지원관 한 명이 두 명의 의원을 동시에 지원을 하다 보니 2 대 1 배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업무량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심도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1 대 1 지원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 아닌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및 투명성 강화에 따라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원이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모든 법이 그러하듯 시대변화에 따른 보다 세밀한 내용들이 아직도 더욱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연구는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나아가야 할 비전을 봄과 동시에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산적한 많은 과업들을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는 더욱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일꾼이 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2023년 ‘의회개혁발전연구회’ 활동을 돌아보며

홍정희 의원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2023년 신설된 의원 연구단체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의회개혁과 발전을 위한 연구 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회의 첫 활동은 지방의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자치법규 정비현황을 파악하여 서대문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의회규칙 개정 방향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혁신을 목표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정책지원관 역할과 운영 방안에 관하여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임용·배치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 직무 및 지휘·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근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역량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지원관 개인별 역량에 따라 정책지원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교육, 우수 지원 사례 발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 년 동안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되돌아보니 ‘서대문구 자치법규 및 조직개선에 대한 입법과제 도출’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함께 학습한 것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1세기 ‘민주적 의회’의 5가지 기본원리인 대표성, 투명성, 접근 가능성, 책임성, 효과성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역의 역할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소통 창구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현안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불평등 (재)심화, 포퓰리즘 확산, 감염병 팬데믹, 재난 자본주의 등 전환기의 핵심 도전과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사회계약과 역동적 민주주의의 구상과 실천을 요구하며 열린 시민사회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위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민 대표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중 연초에 계획했던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강연을 추진하지 못한 점입니다. 내년에는 의회개혁발전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좀 더 활발하게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강연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IV. 언론보도	39
----------------	----

□ 주요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2022.11.17.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 맞춤형 의회 개혁 방안 찾고자 연구 지속해

[아시아일보/이상관 기자]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의회 혁신적 발전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진우(간사),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 지난 7월부터는 “구체적인 의회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지방자치발전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지방의회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서대문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 타 시군구와 서대문구의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 서대문구 현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조목조목 공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용역 과제가 “서대문구의회만의 맞춤형 의회 개혁 방안”인 만큼 서대문구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조직 운영 및 인사(人事)와 관련한 사항을 심층 분석해 중장기적인 전략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의회 발전과 개혁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회는 앞으로도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 의회 개혁을 다각도로 공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12월 중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asiaailbo.co.kr/etnews/?fn=v&no=493184&cid=21050100>

매일일보 2022.12.14.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 구의회 발전·독립성 연구 최종 보고회
“의회 개혁 방안” 마련하고자 전문 연구용역 시행
서대문구의회 조직개선 방안 도출로 의회 발전에 기여



서대문구의회 의회개혁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는 지난 11일 구의회 혁신적 발전과 독립 강화를 위한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는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진우(간사),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이용준, 홍정희 의원으로 구성돼 올해 2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원연구단체다.

특히 이들은 서대문구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활동을 지속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가 가진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의회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사)지방자치발전소와 함께 연구용역을 시행, 이날 최종 보고회를 연 것이다.

보고회 현장에는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의원들과 용역 수행기관인 (사)지방자치발전소의 이영숙 대표 등이 참석, 지방의회의 거시적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서대문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타 시군구와 서대문구의 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 서대문구 현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조목조목 공유하기도 했다.

또, 의원과 정책지원관 대상 설문 결과 발표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인식, 업무 방향은 물론 현실적 한계점까지 상세히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개혁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연구가 가진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가 서대문구의회 조직개선 방향을 제시, 인사권 강화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회의 소속 의원들 역시 본 연구가 가진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 기사 바로보기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23>